

전국 생활체육인 한곳에...오늘 대축제 '팡파르'



26일까지 김해 일원서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이색선수들 '눈길'...광주 700명·전남 1083명 참가

전국 생활체육인들의 화합 한마당 축제인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23일 경남 김해 일원에서 개막한다.

이번 생활체육대축전은 '경남에서 펼쳐지는 감동, 화합의 대축전'이라는 구호 아래 오는 26일까지 김해종합운동장 등 62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경상남도, 경상남도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생활체육대축전은 검도, 게이트볼, 골프, 국학기공, 궁도, 그라운드 골프 등 41개 정식종목으로 치러진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17개 시도 선수와 임원 등 2만여명이 참가해 종합(12세·15세·18세 이하·대학부·일반부 등 5개)로 각 지역의 명예를 걸고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특히 한·일 생활체육 교류를 위해 일본 생활체육 동호인 154명도 축구, 배드민턴 등 8개 종목에 참가한다.

광주는 이번 대축전에 파크골프 등 31개 종목 700명의 동호인 선수단을 파견해 명품 스포츠 도시로서 위상을 알린다.

광주는 지난 대회에서 골프 종목 종합 2위, 줄넘기와 빙상 종목 종합 3위에 입상했다. 축구와 족구 또한 종합 4위에 올라 광주의 자존심을 지켰다. 여기에 당구 74세 이상 캐롬프리리언스 단체전을 비롯해 10개 종목에서 15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2024년 금메달 4개를 획득한 것과 대비, 무려 11개나 많은 금메달을 수확한 바 있다.

올해 역시 다양한 종목에서 최선의 기량을 펼칠 계획이다.

소프트테니스에 출전하는 이학재

씨(89)는 광주선수단에서 가장 최고령이다. 꾸준한 훈련을 통해 변함없는 기량을 뽐낼 예정이다.

연소 참가자로는빙상종목 신유주(8세)가 이번 대축전을 발판 삼아 광주체육미래를 이끌 꿈나무로 주목받고 있다.

이외에 국학기공 김필중·박미옥씨, 육상최도선

·유미선씨, 스쿼시 안주현·이영란씨, 철인3종 신영일·마은희씨는 부부가 함께 참가해 다년간 함께 쌓아온 호흡과 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에어로빅 종목에는 배수현·수찬·수아 3남매가 나란히 출전에 가족이 만들어낸 특별한 팀워크로 기대를 모은다.

24일 오후 6시 30분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에서 광주선수단은 2028 전국체육대회 성공 개최 광주, 2030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도시 광주

를 호응할 방침이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경상남도의 맛과 멋을 즐기고 갈고닦은 기량을 충분히 발휘해 목표했던 성과를 거두길 응원한다"며 "광주선수단 모두가 안전하게 경기에 임하고 지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전남에서는 35개 종목에 1083명이 나선다. 이번 대회에서는 다양한 이색 참가자들이 눈길을 끈다.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23~26일 김해 일원에서 열린다. 사진은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에서 광주 선수단이 입장하는 모습. 사진제공=광주시체육회

△ 지난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에서 전남 선수단이 입장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전남도체육회

주, '시민과 함께하는 명품 스포츠 도시 광주' 등을 홍보할 방침이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경상남도의 맛과 멋을 즐기고 갈고닦은 기량을 충분히 발휘해 목표했던 성과를 거두길 응원한다"며 "광주선수단 모두가 안전하게 경기에 임하고 지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전남에서는 35개 종목에 1083명이 나선다. 이번 대회에서는 다양한 이색 참가자들이 눈길을 끈다.

틀러 종목의 김은후군(8)이 최연소 선수로 출전하고, 당구의 윤병하씨(88)가 최고령 선수로 참가해 생활체육의 저변과 의미를 보여준다.

쌍둥이 자매 등 가족 단위 참가도 두드러진다. 쌍둥이는 태권도 양소원·양정원, 자매는 그라운드골프의 이경순·이사은·김은숙·김연옥, 형제는 롤러의 주은호·주은우다.

부부는 그라운드골프의 조민현·최영자·박홍기·김은희·조영택·김정순, 배드민턴의 김병훈·우종임·강봉선·신나라, 육상의 양인균·최광임·김동욱·김정일·김영균·최선미 등이다.

이 중 육상 김성봉(남·77)·오이순(여·70 이상 포함던지기) 부부는 각각 2연패와 3연패에 도전한다.

다. 전남도체육회 이사인 오만평씨(남·61)도 남자 포함던지기 종목 64세 이하부에서 3연패에 도전해 관심을 모은다.

이와 함께 그라운드골프 단체전(74세 이하)과 배구 남자일반부에서도 3연패 도전에 나서는 등 전남 선수단의 경기력과 저력을 한껏 과시할 전망이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이번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도민 누구나 참여하는 생활체육의 가치를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전남 선수단이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전국 체육인들과 교류하며 전남 체육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하경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 꿈나무 총출동...소년체전서 '금빛 도전' 나선다

축구 등 37개 종목 1090명 출전 "꿈 향한 도전, 아낌없는 응원"

광주시체육회가 오는 5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할 광주 대표 선수단 구성을 마쳤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3월부터 축구와 양궁 등 지역 내 22개 경기장에서 전국소년체전 광주대표 선발 예선대회를 열고, 공정한 선발 절차를 거쳐 총 662명의 학생 선수를 최종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광주 선수단은 37개 종목에 출전하는 초·중등 선수 662명과 지도자 428명 등 총 1090명 규모로 꾸려졌다.

시체육회는 동계훈련을 거쳐 갈고닦은 기량을 바탕으로 광주 학생선수들이 전국 무대에서 경쟁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종목에서는 지난해부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온 선수들이 기대주로 꼽힌다.

복싱의 김준재(광주체육 3년), 소프트테니스의 문별하(신광중 3년), 양궁의 김준서(광주체육 3년), 씨름의 김하을(광주중 3년) 등이 광주 대표로 출전해 선전을 노린다.

단체종목에서도 기대감이 높다. 지난 대회 준우승을 차지했던 신광중학교 소프트테니스팀은 다



광주시체육회가 오는 5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할 광주 대표 선수단 구성을 마쳤다. 사진은 팽성 예선대회 격려 방문에 나선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과 선수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광주시체육회

시 한 번 전국 정상급 기량에 도전한다.

농구 문화중, 핸드볼 조대여중, 하키 송광중, 소프트테니스 금호중은 지난 대회 동메달 이상의 성과를 목표로 탐구열에 힘을 쏟고 있다.

이와 함께 검도 서석중, 럭비 무진중, 배구 치평초와 문흥중, 야구 수창초와 무등중도 광주 대표로 전국소년체전에 나서 지역의 명예를 걸고 열전에 돌입한다.

전갑수 광주광역시체육회장은 "동계훈련부터 공정한 경쟁을 통해 광주 대표로 선발된 선수들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꿈을 향해 도전하는 우리 지역 학생선수들에게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전국소년체전에는 산악, 스쿼시, 합기도, e스포츠(FC 온라인) 등 4개 종목이 정식종목으로 새롭게 채택됐다.

이에 따라 대회는 총 40개 종목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이 참가하는 대회로 치러지며, 규모와 경쟁 수준도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송하경 기자 hajong2@gwangnam.co.kr

2026 나고야 AG 클라이밍 태극전사 확정

이도현·서채현 등 메달 사냥 나선 국가대표 12명 선발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회장 조좌진)이 오는 9월 일본에서 개최되는 '2026 제20회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대회'에 나설 스포츠클라이밍 국가대표 선수단 12명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아시안게임 출전권은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와 올해 4월 중국에서 막을 내린 '2026 월드클라이밍 메이산 아시안선수권대회' 성적을 합산해 배분됐다.

특히 이도현과 서채현, 정지민은 지난해 서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일찌감치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나고야행 열차에 올라탄 남자부 명단에는 불타

종목의 이도현·천종원, 리드 종목의 이도현·노현승, 스피드 종목의 김동준·조진용이 이름을 올렸다. 여자부에서는 불타의 서채현·노희주, 리드의 서채현·김재영, 스피드의 정지민·성한아름이 메달 사냥에 나선다.

아시아스포츠클라이밍연맹(ACC) 역시 지난 15일 이와 같은 출전 선수 명단을 공식 발표하며 대진 구도를 구체화했다.

연맹은 아시안게임 명단 발표와 더불어 2026년도 국가대표 선발 작업도 마무리했다.

지난 3월 전북 군산에서 열린 제46회 전국선수권대회와 4월 아시안선수권대회 성적을 종합적으



이도현



서채현

로 검토해 한 해 태극마크를 달 주인공들을 최종 낙점했다.

조좌진 대한산악연맹 회장은 "대한민국 클라이밍이 아시아 무대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증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훈련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아시안게임 스포츠클라이밍 종목은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닷새간 펼쳐질 예정이다.

황해은 기자 nab@gjdream.com



AI페퍼스 박정아·이한비, FA 후 이적...광주 떠난다

한국도로공사·현대건설로 이동

'사인 앤드 트레이드' 방식

선수단 계약 마감 6월 30일

구단 매각 절차에도 주목

여자프로배구단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 박정아와 이한비가 광주를 떠난다.

한국배구연맹(KOVO)가 지난 21일 발표한 여자부 자유계약선수(FA) 결과 공시에 따르면 박정아는 총액 1억8000만원(연봉 1억5000만원·육선3000만원)으로, 이한비는 연봉 1억에 AI페퍼스와 계약을 마쳤다.

결과는 원소속 잔류지만, 결국 동지를 옮기게 됐다. 이들은 '사인 앤드 트레이드' 방식으로 각각 한국도로공사 현대건설로 적을 옮겼다. 높은 연봉으로 사실상 이적이 불가능했으나, 연봉을 낮춰 계약한 뒤 트레이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박정아는 지난 2023년 한국도로공사에서 AI페퍼스로 합류한 베테랑 아웃사이드 히터다. 당시 계약 기간 3년에 7억7500만원(연봉 4억7500만원, 인센티브 3억원)으로 김연경과 함께 여자부 최고 연봉에 올랐다. 박정아는 187cm의 우수한 신장과 탄력 있는 근육으로 공격 타점이 좋으며 페이크 공격도 능수능란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토종 거포다. 특히 플레이가 과



감하고 클러치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의 100% 이상을 보여줘 '클러치 박'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아웃사이드 히터 이한비는 2021-2022시즌 합류한 AI페퍼스의 원년 멤버다. 지난 2023년 생애 첫 FA 자격을 획득했던 이한비는 이번 계약으로 두 번째 FA를 맞이했다. 그는 지난 시즌 3억6000만원(연봉 3억4000만원, 육선 2000만원)으로 AI페퍼스와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결과로 박정아와 이한비는 'FA 미아' 상태를 피하게 됐다. FA 미계약자는 다음 시즌 계약이 제한된다.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구단의 상황상 계약이 어려울 것으로 보였으나, 타 구단의 트레이드 제의가 이뤄지면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하지만 AI페퍼스는 여전히 큰 문제를 안고 있다. 다음 달 12일 연고지 협약이 종료되는 가운데, 아직 인수 기업을 찾지 못했다. 시간은 촉박하다. KOVO 규정상 다음 시즌 참가를 위해서는 2026-2027시즌 선수 등록 마감일인 6월 30일까지 계약을 완료해야 한다.

특히 이사회 승인과 선수단 정비 등의 절차를 고려한다면 사실상 5월이 마지막이다. 이대로 매각이 불발된다면 팀 해체까지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

광주·전남 유일 동계 프로스포츠팀인 AI페퍼스가 새로운 주인을 찾으며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경 기자 hajong2@gwangnam.co.kr